

< 행복 장학회 관계자님께 >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 장학생 채시은입니다.

아직 여러모로 믿음이 부족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제 2기 행복 장학생으로 뽑아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년동안 비록 2번이라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짧은 만남이 보다 가치있던 만남이 된 것 같습니다.

행복 장학회를 통하여 장학금 말고도 파주의 많은 곳을 직접 방문하면서 공부하느라 바쁘기만 하던 저의 생활에 잠시 쉬고 힐링할 수 있었고 대학생 멘토와의 만남이라는 흔치 않은 기회를 주셔서 좀 더 열심히 학교 생활에 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맞이할 행복 장학회에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또 다른 의미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기대 됩니다. 저도 이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도록 노력하여 행복 장학회의 노력과 제공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하고등학교 2학년 4반 채시은 올림

파주시 행복장학회 관리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2학년 2반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파주시 행복 장학회 2기 학생으로, 올해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저를 장학생으로 뽑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학업 상적으로나, 이런 저런 면에서, 이렇게 큰 장학금을 받은 정도로 뛰어나지 않은 저인데,

이런 부족한 저를 행복 장학회의 장학생으로 뽑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파주시 행복 장학회 덕분에, 학교 생활에 더더욱 성실하게 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시고 부딪혀 하셔서, 학업에도 더 충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면에서, 파주시 행복 장학회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몇 달 전, 행복 장학회에서 연수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 당시에는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실제로 큰 도움이 됐던 기회였습니다. 평상시에는 듣지 못할 값진 연설과,

곧 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대학생 선배들의 경험담 등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에게 그런 기회를 안겨 주신 장학회 관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파주시 <sup>행복</sup> 장학회의 학생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학교 생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1월 2일,

포항공과대학교 2학년 2반

김유진 드림.

# < 감사 편지 >

2018 김가람

안녕하세요, 저는 교하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김가람입니다. 벌써 행복장학금을 받은지 1년이 지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네요, 또한 자기주도적으로 성실히 공부한지는 약 2년이 됐네요. 저는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여러가지 사관, 사고를 겪으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공부하려고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있기 힘들고, 게임도 자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적이 향상되고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1년동안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니 공부가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성적이 잘 나오지만 중학교때와는 다른 생활 방식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때, 행복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다시 힘을 내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복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저는 단지 물질적인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장학금은 저에게 모범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했고, 공부가 질릴 때마다 저를 공부하게끔 자극했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공부하도록 하는 행복장학금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